

'민생운동'으로 시민에 다가가는 변화 모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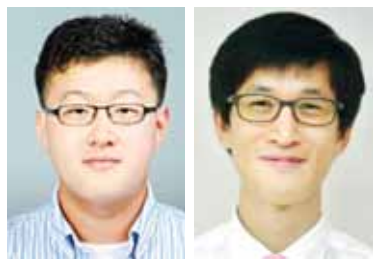


<하> 나이갈 길은

정체성 정립 연대 유지 주민 호응 이끌어 내기

독도문제·법률상담 등 젊은 전문가 발굴 힘써야

‘집회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특정 사업에 맞춰 보조금을 받아 ‘이벤트성’ 단일 행사를 치르는 것.’ 시민들이 광주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면 쉽게 연상하는 모습이다. 이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시민단체활동 유



서현웅 사무국장 임성화 간사

형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기존의 관행적 활동방식에서 탈피, 시민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현안을 찾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분석해 낸 뒤 알려주고 호응을 이끌어 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모습이다. 이젠 '정체성'을 담아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특히 공통점도 전혀 없는 단체들이 특정 이슈에 한꺼번에 몰려 다니는 식의 운동이 아닌, 시민들과 끈끈한 접점을 유지하면서 각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담아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만한 민생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새 길을 찾아라=시민운동이 당연한 우선과제는 대중의 신뢰회복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반 시민의 관심은 경제·사회복지 등 민생 이슈에 집중돼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거대 담론에 치우쳤다. 시민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시민단체가 시민을 등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치 권향과 시민활동을 제도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은 데 대한 쓴소리도 많다. 이에 따라 달라진 환경에 맞는 시민운동 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시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시위나 구호보단 지역을 거점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포럼형 운동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기후변화 양성과정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삶에 밀착한 이슈를 따라가는 생활 기반형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단체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들을 찾기 쉽지 않지만, 이들은 자신이 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젊은 일꾼 키워라=새로운 환경에 맞는 젊은 활동가 양성이 시급하다. 낮은 처우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을 갖고 희망을 놓지 않는 젊은 활동가를 발굴, 끌어들이는 것도 과제다. 물론, 힘든 여건 속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며 힘을 내 달려 가는 이들도 있다.

서현웅(32) 광주 흥산단 사무국장·광주 YMCA 시민운동팀 임성화(35) 간사의 경우 젊은 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2년차인 서 사무국장은 독도·위안부문제 등 청소년 육성교육을 주로 맡고 있으며, 3년차인 임 간사는 소비자법률상담 및 에너지 절감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서 사무국장은 "청소년 육성교육 업무를 맡았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뒷받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민단체가 다른 지역과 소통하면서 지역현안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며 "민·후날에도 시민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물론, 고민도 안고 있다. 역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뛰어나지만, 후진 양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털어놓는다. 인력난이 가중될수록 시민운동 활동 자체가 부실해지게 되고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임 간사는 "시민생활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시와 시민참여형 시민운동으로 거듭 나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활동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중형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6분 해질 18시 56분 달돋이 02시 02분 달질 12시 48분

화창한 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하겠다.

광주	맑음	5/23°C
목포	맑음	5/20°C
여수	맑음	11/17°C
나주	맑음	3/24°C
완도	맑음	6/20°C
구례	맑음	3/24°C
강진	맑음	3/20°C
해남	맑음	4/21°C
장흥	맑음	3/21°C
순천	맑음	3/23°C
영광	맑음	3/21°C
진도	맑음	5/18°C
군산	맑음	3/20°C
남원	맑음	2/23°C
옥산도	맑음	7/15°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김기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0.5~1.0m	주의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0.5~1.5m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목포 08:35	00:47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m	목포 20:50	14:07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m	여수 03:42	10:1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여수 16:07	22:0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7/23	12/14	4/7	5/16	6/15	5/14

기부금 활성화 발목 잡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라

205개 시민단체 국회에 의견서 제출

한국NPO공동회의 등 205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3일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신설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8개 항목 가운데 지정기부금이 포함되면서 기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기부문화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개정안 132조의 2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지정기부금 등 8개 항목의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소득공제에서 빼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정기부금은 나머지 7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적용하

로 7개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지정기부금이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공동회의 등은 "공익적 지출인 기부가 사익을 위해 지출하는 항목들과 동일시되면서 기부자들의 진정성을 깎아내릴 우려가 크다"며 "막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영환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6명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 이들을 올린 205개 단체는 공동회의를 비롯해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등이다. /연필뉴스



5·18 후유증... 눈물 짓는 피해자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3일 광주도시공사에서 '5·18 민중항쟁 트라우마, 치유의 첫발을 내딛는다'라는 주제로 첫 상담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80년 5월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 집단상담(7명)과 꿈치

료 결과, 5·18 피해자 트라우마의 특징·후유증 등이 발표됐다. 피해자 박천만(53)·윤다현(62)씨는 이날 5·18 당시 겪은 피해와 치료 과정 등을 직접 설명했다.

행사에서 5·18 민주항쟁 피해자, 가족 등이 계엄군에 무참히 짓밟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국공립 어린이집 5곳 신설

전국적으로 올해 광주·전남 5개 등 96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96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작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75개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2곳 들어선다.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19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변덕날씨' 4월, 건강관리 주의를

농가 시설물관리 유의 당부

봄이 무르익는 4월, 광주·전남지역 기온 변화가 잦을 것으로 전망돼 건강과 시설물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 1개월 전망'을 통해 이달 중순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일교차가 큰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변화무쌍한 날씨는 하순까지 이어진다.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 변화가 잦고,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

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21일, 따듯하고 습한 저기압이 남해안을 통과하며 완도 149.0mm, 여수 89.0mm, 장흥 127.5mm 등을 기록한 만큼, 올해도 기습 폭우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다음달 초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역시 기온의 변화가 크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 영락공원 화장로

한식일 맞아 연장 가동

광주도시공사(사장 홍기남)는 한식을 맞아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화장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영락공원 화장로를 연장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화장로 8기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상시보다 2시간 연장 가동하기로 했으며, 시간

대별로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전 화장로에서 개장유류 화장을 하고 오전 8시 이후에는 일반화장 6기, 개장유류 2기를 배분해 수요에 대비키로 했다.

개장유류 화장 접수는 사전 예약을 받지 않고 영락공원 당일 도착 접수 순번에 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추모관을 이용객을 위해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성인	23,000 / 27,000	30,000 / 33,000
초등학생	12,000 / 14,000	15,000 /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 9,000	10,000 /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빌드프로젝트 및 맞춤형식 준비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나주)
☎ 061-332-1111

- 150석 규모 웨딩홀
- 100석 규모 연회장
- 50석 규모 연회장

이동금액 (취미 1인기준)
★평일 20,000원~25,000원
★주말·공휴일 25,000원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 코스요리		정식 코스요리	
참조기탕	12,000원	A코스	40,000원
생우렁탕	12,000원	B코스	50,000원
대구탕	15,000원	C코스	60,000원
생선초밥	12,000원	(1인기준 2인이상)	
특초밥	15,000원	주말 가족특선	
생선구이	15,000원	4인 한상차림 100,000원	
굴비정식	2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	
나고야정식	25,000원		